

# 신안서 멸종위기 '기수갈고둥' 서식 첫 확인

암태도 자갈해안 약 9만6000여마리 생존 추정 보존·관리 나서  
1990년 이후 하천 개발·갯벌 오염 등으로 찾아볼 수 없는 생물

신안 암태도에서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둥'의 서식이 최초로 확인됐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암태도 박달산 계곡의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동쪽 자갈해안 약 600㎡ 면적에서 기수갈고둥이 관찰됐다.

기수갈고둥은 1990년대 이후 하천과 해안선 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대부분 훼손·오염되면서 사라져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생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기수갈고둥은 크기가 약 1~1.5cm의 작은 고둥이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하천 하류에 살아가는 작은 민물고둥으로 자갈이나 암반 지대에 서식하며 9월께 알에서 깨어나 12년 정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서식지는 장흥·보성과 경남 사천 등 남부지방이다. 최근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도 발견됐다.

신안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견된 기수갈고둥은 약 0.25㎡에서 40개체가 발견됐다. 전체 면적 대비 약 9만6000여마리가 서식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수갈고둥은 환경지표 생물로 신안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신안지역에 분포한 대부분의 갯벌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신안군은 해안 쓰레기 처리 등 갯벌 환경 개선과 탐방로 조성 등 습지보호를 위해 1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국가적인 보호와 관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신안군은 암태도를 비롯한 신안지역 모든 섬을 조사해 저서동물에 비롯한 생물의 서식지 실태를 파악하고 홍보·서식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기수갈고둥의 서식이 확인된 신안 암태도 동쪽 자갈해안 전경과 기수갈고둥. <신안군 제공>

교육 자료집을 만들 계획이다. 또 습지와 갯벌의 가치와 보존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제19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도 오는 5월 신안 증도에서

열 계획이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는 오는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함평소방서, 신입 공무원 채용 함평소방서(서장 임동현)는 최근 신입 소방공무원 9명을 임용했다. 신입 소방공무원들은 소방학교에서 전문교육 12주와 소방관사에서 4주간의 실습을 마치고 함평소방서로 정식 임용됐다. 첫 발령을 받은 이들은 소방안전 행정업무에서 현장활동까지 재난 현장 일선에서 화재·구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 방사능 오염 조사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위원장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과 토양, 식수, 해저토 등 영광지역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매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감시위는 연중 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한빛원전 부지 내외의 토양, 빗물, 식수, 해저토, 지표식물 등 가공식품 11종 등 총 396건을 수거해 감시센터에서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감

시센터 홈페이지 또는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2월 검사 결과는 최근 2·3년 조사결과와 특이 사항은 없었다.

이나영 한빛원전민간감시센터 분석팀장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한빛원전 운영에 따른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영광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 등 환경시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광양버스터미널

시가 직접 임대 운영

6월부터 정상화

사업자가 운영을 중단해 임시로 운영 중인 광양버스터미널을 광양시가 임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광양버스터미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자로부터 시설을 임대해 시가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임대 기간은 3년이며, 연간 임대 금액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터미널 건물 가운데 대합실과 화장실, 매표실, 사무실, 주차장, 플랫폼 등 터미널 용도만 임대할 계획이다.

연간 예산은 임대료를 제외하고 인건비 등 1억80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광양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임대료가 결정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 이르면 6월부터 터미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터미널 사업자도 임대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며 "터미널 운영을 하루속히 정상화해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신안군, 희귀 자생식물 표본 300점 제작 전시



흑산비비추



새끼노루귀



신안새우난초

도서자생식물보존센터, 2026년까지 1800점 발굴·보존키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신안군이 섬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표본으로 제작한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자은도 도서자생식물센터는 섬지역 자생식물을 확보·표본화해 전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전시·수장고에 보관할 식물표본 300점을 제작한다. 이는 기후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난대림이 확산되고 고유한 식생·식물상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고유 자생식물을 발굴·표본화해 귀중한 자원을 후세에 남기기 위한 사업이다.

도서자생식물보존센터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지역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희귀 자생식물을 발굴·보존해 유전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관했다.

신안도도에 생물권보전지역 생물상 문헌조사에 따르면 신안군에 자생하는 식물

은 총 1878종이 확인됐다. 신안군은 오는 2026년까지 매년 식물표본 300점씩 총 1800점을 제작할 계획이다.

신안은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6년 신안군 전역(323만㎡)으로 확대 지정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도서자생식물보존센터는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과 자생식물에 대한 보호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판로 숨통 트인 영광농산물

국내 대형 양곡유통기업과 업무협약... 10억원 구매 예정

영광 농산물이 국내 대형 양곡유통기업을 통해 판매된다.

영광군은 지난 5일 농업회사법인 ㈜반석과 농특산물 구매 약정 및 판로 확대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반석은 충북 청주에서 양곡유통창고와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는 대형 양곡유통 기업이다.

이날 협약으로 반석은 영광산 농산물을 10억원 구매 약정과 농가 상생발전을 위한 투자를 약속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우수한 영광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해 영광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 SAMSUNG 삼성화재 | H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KOREAN KOREAN | SGI서울보증 | AXA AXA | AIG | TheK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